

금호석유화학, 맞춤형 휠체어 지원



금호석유화학(대표 박찬구)은 추석을 앞둔 9월8일 장애인 재활시설인 주몽재활원(서울 강동구)에 맞춤형 휠체어 등 보장구를 지원했다고 9월9일 발표했다.

금호석유화학이 기증한 보장구는 휠체어, 지지대 등으로 구성됐으며 주몽재활원에서 생활하는 30명의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.

금호가 제작비용 5000만원을 지원하고 전문 제작회사가 2개월에 걸쳐 보장구를 설계하고 만들었다.

기증식을 마치고 박찬구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신입사원, 봉사동아리 임직원들은 추석맞이 송편빚기 행사에 참여했다.

<화학저널 2011/09/09>